

# 2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20년 2월 3일



## 해양기상정보

- 해상특성(최근 5년간('15~'19년) 2월, 파고 기준)
  - 상순: 먼바다와 동해중부·남부앞바다의 파고는 약간 높으나 그 밖의 해역에서 파고 낮음
  - 중순: 먼바다와 동해중부·남부, 제주도앞바다의 파고는 약간 높으나 그 밖의 해역에서 파고 낮음
  - 하순: 먼바다와 동해중부앞바다의 파고는 약간 높으나 그 밖의 해역에서 파고 낮음
    - ※ 파고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풍량특보일 수(최근 5년간('15~'19년) 2월)
  - 8.0일(상순 3.6일 / 중순 3.0일 / 하순 1.4일)로 전월(9.5일)보다 1.5일 적음
- 해수면온도('19년)
  - 1월 실황: 서해(7.1~9.2℃) / 남해(12.1~16.8℃) / 동해(12.7~16.5℃)
  - 2월 예측: 서해(4.0~8.0℃) / 남해(10.0~16.0℃) / 동해(10.0~13.0℃)
- 조석정보(고극조위, '19년 2월)
  - 인천: 11일(914cm) / 완도: 10, 11일(401cm) / 포항: 10, 11, 12일(19cm)

##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4~'18년))
  - 전체 16,009척 중 764척(4.9%)으로 연 평균 159여척의 사고가 발생
  - ☞ 낮은 수온 등으로 충돌·전복·침몰 등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익수 시 인명 사망률이 높아 사고예방이 특히 중요함. 기상특보 및 항행정보를 수시로 확보하여 사고예방에 철저하여야 함

## 어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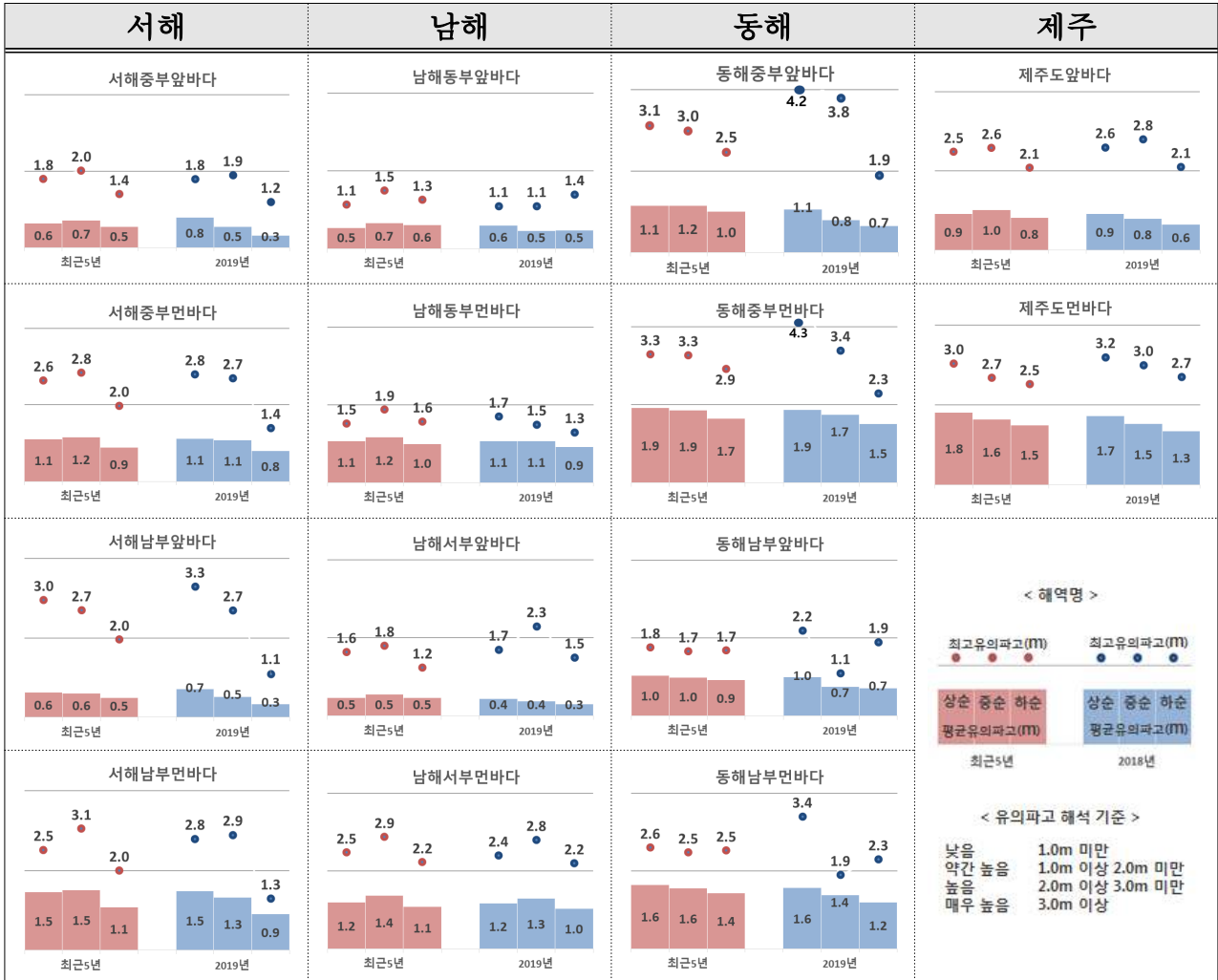
- 2월 어황 전망
  - 고등어, 삼치, 방어, 청어, 기름가자미, 도로묵, 대구는 평년수준, 아귀류, 갈치, 병어류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 오징어 평년비 부진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0년 3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는 2020년 3월 2일에 발표됩니다.

# 해양기상정보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2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5년간('14~'19년) 및 지난해('19년) 2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죽변, 구룡포, 후포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최근 5년)

○ 최근 5년간('15~'19년) 2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0.9m(상순 0.9m / 중순 0.9m / 하순 0.8m)로 전월(0.9m)과 비슷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6m (전월과 비슷)	1.1m (전월과 비슷)
남 해	0.6m (전월보다 0.1m 높음)	1.2m (전월과 비슷)
동 해	1.1m (전월과 비슷)	1.7m (전월보다 0.2m 낮음)
제주도	0.9m (전월과 비슷)	1.7m (전월과 비슷)

<순별 평균 유의파고>

- 2월 상순에 동해중부·남부앞바다, 중순에 동해중부·남부와 제주도앞바다, 하순에 동해중부앞바다에서 파고 약간 높았으며, 그 외 앞바다에서 파고 낮았음.
- 2월 전반적으로 먼바다 해상에서는 파고 약간 높았음

	앞바다			먼바다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6	0.7	0.5	1.3	1.3	1.0
남 해	0.5	0.6	0.5	1.1	1.3	1.0
동 해	1.1	1.1	1.0	1.8	1.7	1.5
제주도	0.9	1.0	0.8	1.8	1.6	1.5

※ 파고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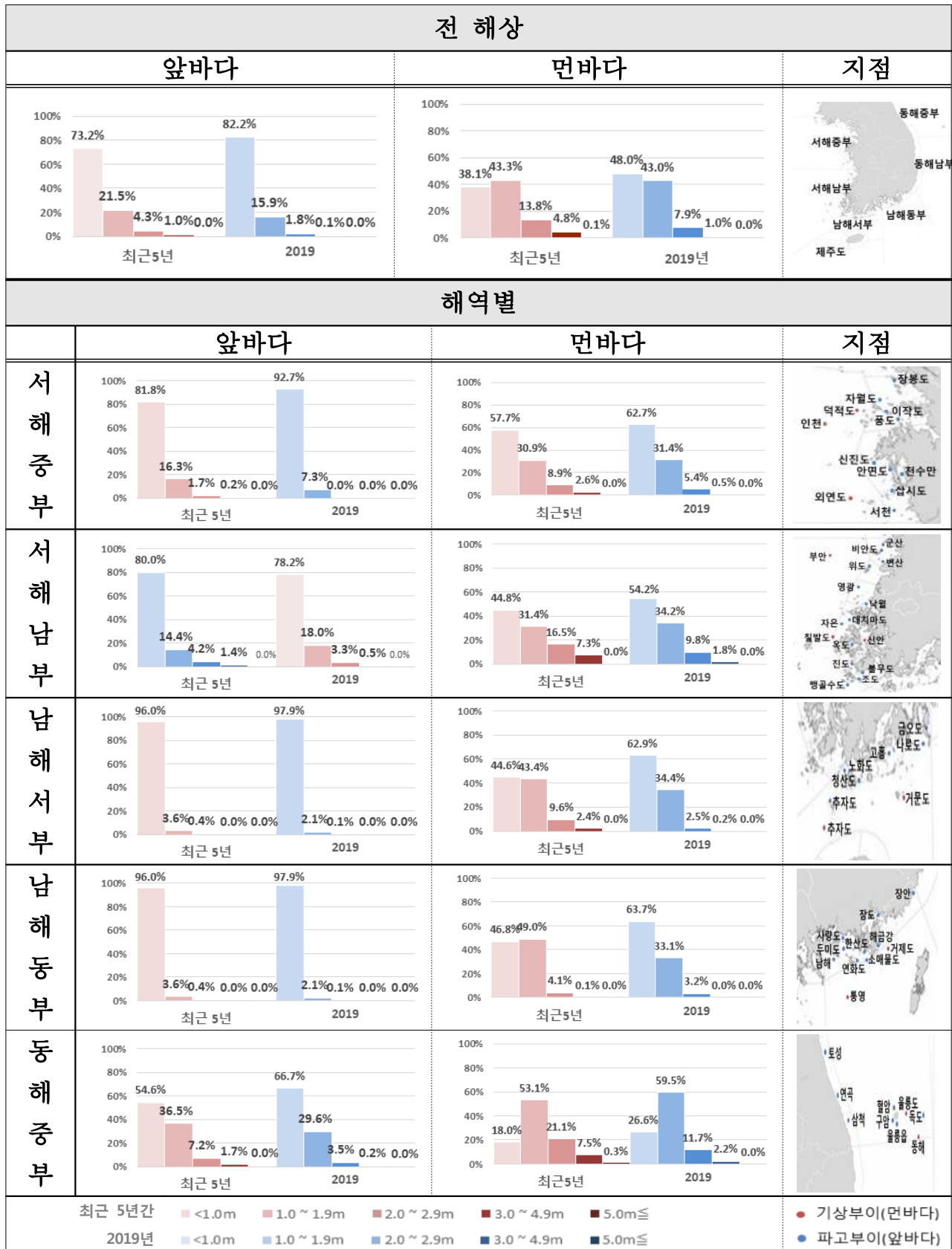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2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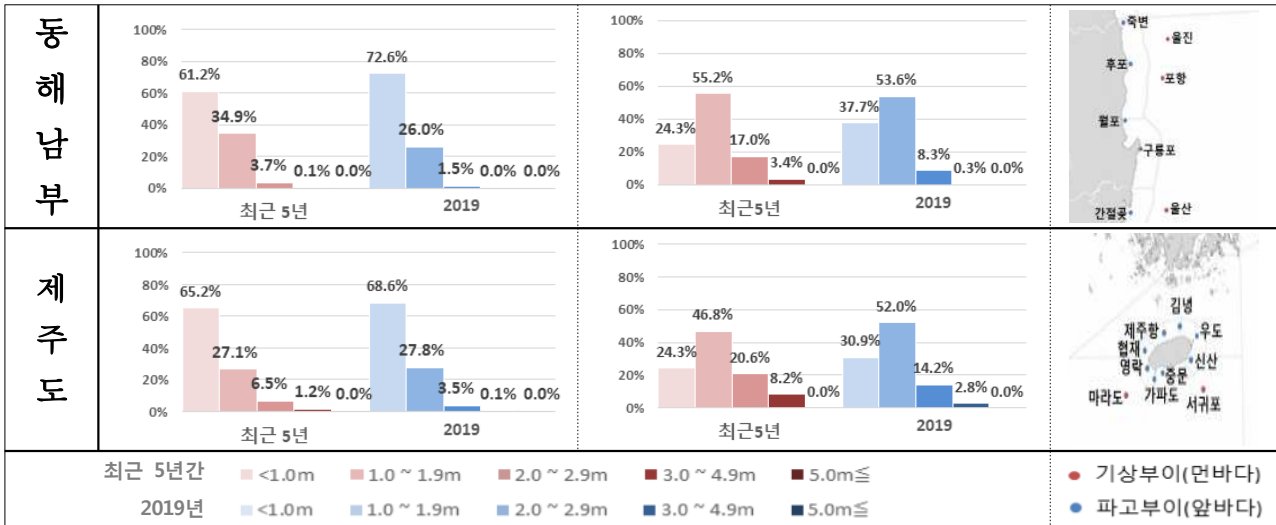
- 서 해: 앞바다 3.0m / 먼바다 3.1m
- 남 해: 앞바다 1.8m / 먼바다 2.9m
- 동 해: 앞바다 3.1m / 먼바다 3.3m
- 제주도: 앞바다 2.6m / 먼바다 3.0m

○ 관측 이래 2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05.2.1	4.5 (5.5)	부안	'16.2.14	4.3 (4.9)	외연도	'16.2.14.	4.2 (4.8)
남 해	거제도	'10.2.11.	3.8 (5.0)	추자도	'16.2.14.	3.7 (4.4)	거문도	'09.2.13.	3.4 (4.7)
동 해	울릉도	'13.2.8.	4.6 (5.1)	울릉도	'18.2.4.	4.3 (5.9)	동해	'18.2.4.	4.3 (5.4)
제주도	마라도	'12.2.2.	3.6 (4.2)	마라도	'17.2.10.	3.6 (4.0)	마라도	'15.2.8.	3.4 (4.5)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2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2월 전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73.2%, 2m이상 5.3%  
(먼바다) 1m미만 38.1%, 2m이상 18.6%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82.2%, 2m이상 2.0%  
(먼바다) 1m미만 48.0%, 2m이상 8.9%

○ 최근 5년간('15~'19년) 2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81.5%, 2m이상 2.1% (먼바다) 1m미만 53.9%, 2m이상 15.1%
- 남해 (앞바다) 1m미만 96.0%, 2m이상 0.4% (먼바다) 1m미만 45.4%, 2m이상 9.2%
- 동해 (앞바다) 1m미만 56.5%, 2m이상 7.5% (먼바다) 1m미만 20.1%, 2m이상 26.0%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65.2%, 2m이상 7.7% (먼바다) 1m미만 24.3%, 2m이상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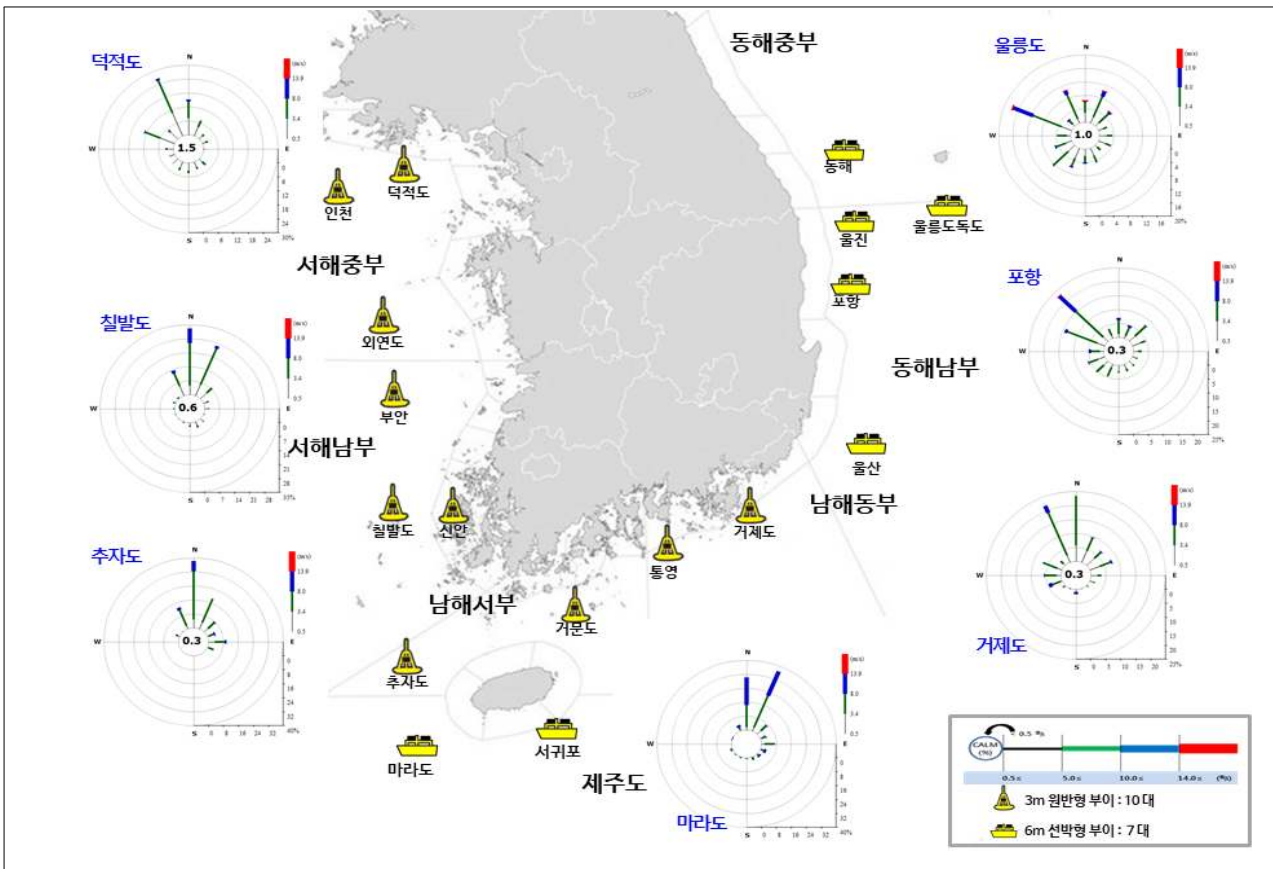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2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5년 (1m미만) 남해동부·서부앞바다(98.1%)  
(2m이상) 동해중부 먼바다(28.9%)
- 지난해 (1m미만) 남해동부·서부앞바다(99.9%)  
(2m이상) 동해중부 먼바다(17.1%)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메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최근 5년 통계 지점, 지난해('19년) 통계자료는 \*지점이 추가되었음

■ 지난해('19년)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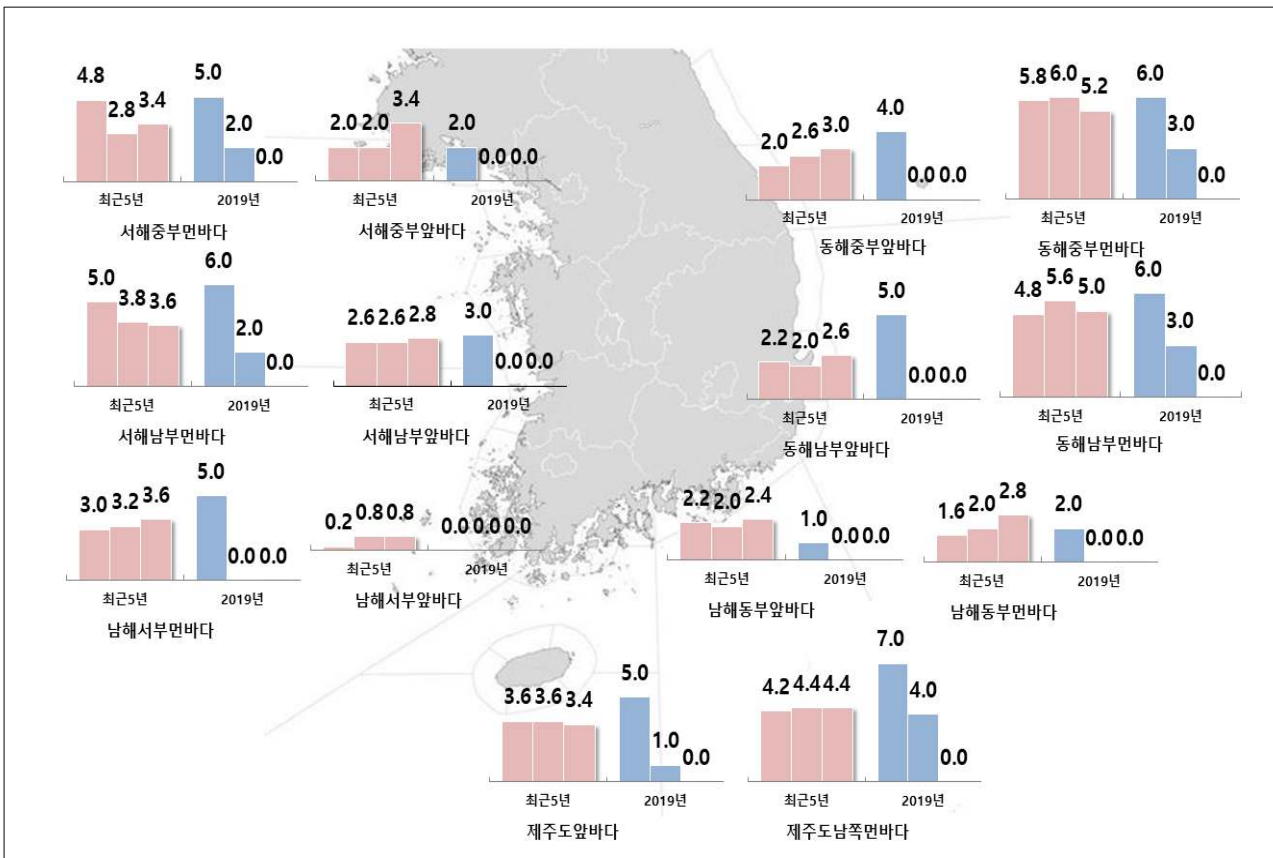
< '19년 2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19년) 2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NWW~N	0.9	46.8	46.3	6.0	-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	0.8	38.8	53.5	6.9	0.2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N	0.4	24.0	65.1	10.5	0.2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NNW~N	0.5	36.0	56.2	7.3	-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W~N	1.1	34.8	55.0	8.6	1.2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W~N	0.4	34.7	55.6	9.3	0.2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	N~NNE	0.2	13.8	50.4	32.6	3.2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0.6	32.7	54.6	11.6	5.0	

- 주풍계: 서해상에서 북풍, 동해상에서 북서풍, 제주도 해상에서 북풍~북동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33.3% / 5.0 ~ 9.9m/s 54.6% / 10.0m/s 이상 16.6%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서해중부(47.7%)
  - 10.0m/s 이상: 제주도남쪽(35.8%)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2월 풍랑특보일 수



<최근 5년간('14~'19년) 및 '19년 2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2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8.0일, 전월(9.5일)보다 1.5일 적음
- 지난해: 5.1일, 전월(8.6일)보다 3.5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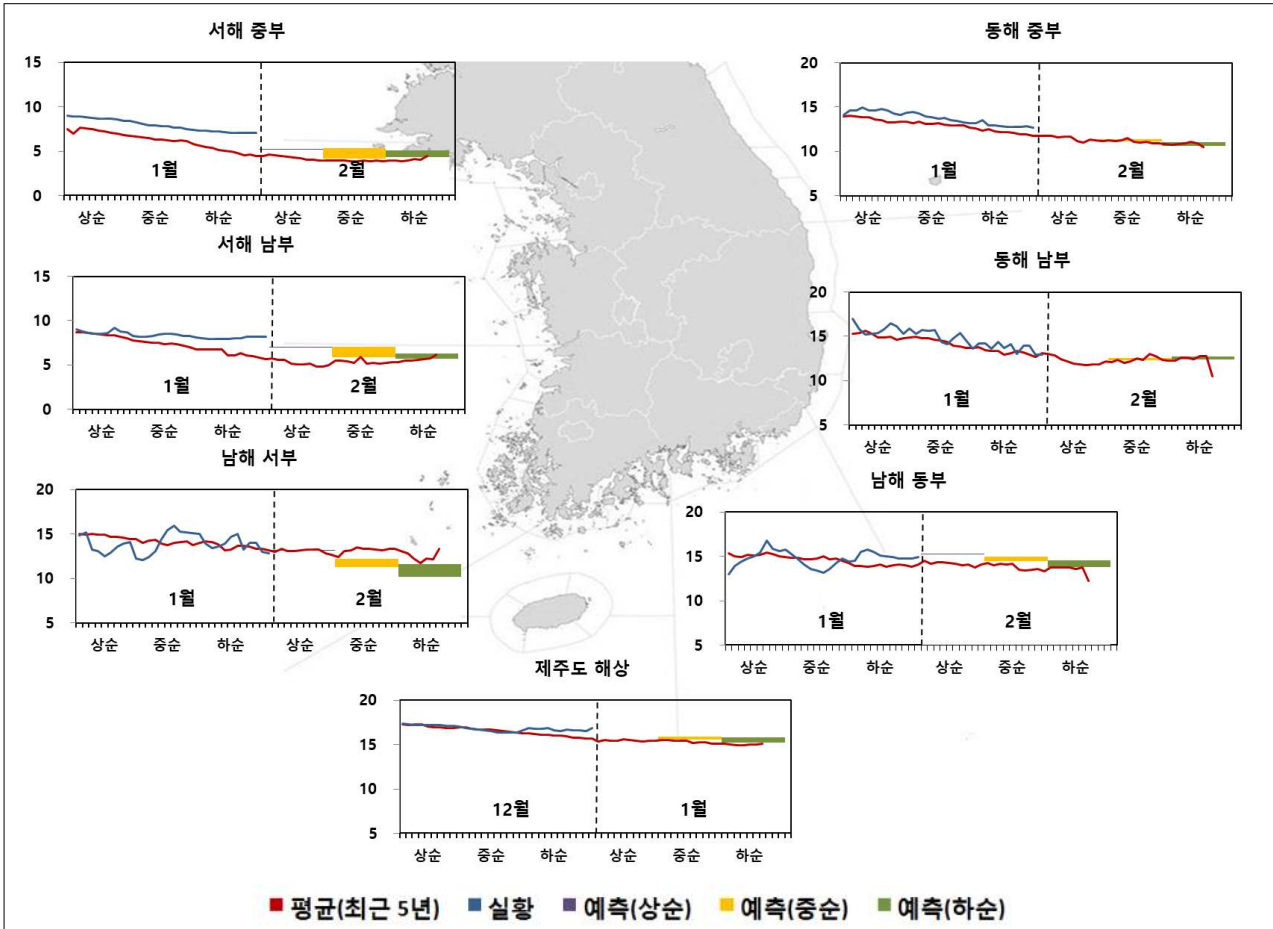
○ 2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3.6일 / 중순 3.0일 / 하순 1.4일
- 지난해: 상순 4.1일 / 중순 1.1일 / 하순 0일

○ 2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동해중부먼바다(4.3일) / 남해서부앞바다(0.8일)
- 지난해: 제주도남쪽먼바다(11일) / 남해서부앞바다(0일)

■ 해수면온도 지난달(1월) 실황 및 2월 예측



< 해수면온도 12월 관측값 및 2월 예측 >

- ☞ 해수면온도는 해양기상부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5~'19년) 2월 관측값의 평균, '실황'은 지난달(1월)의 관측값임
  -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제주도(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 해수면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달 1월('20년) 해역별 해수면온도 특성

해역	12월 해수면온도(°C)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8.4 ~ 9.0 (+1.3)	7.4 ~ 8.3 (+1.4)	7.1 ~ 7.4 (+1.9)
서해남부	8.2 ~ 9.2 (+0.2)	8.0 ~ 8.5 (+0.9)	7.9 ~ 8.2 (+1.7)
동해중부	14.1 ~ 15.0 (+0.9)	13.2 ~ 14.5 (+0.6)	12.7 ~ 13.5 (+0.6)
동해남부	15.2 ~ 16.5 (+0.6)	13.6 ~ 15.7 (+0.4)	12.9 ~ 14.4 (+0.4)
남해서부	12.1 ~ 15.2 (-1.5)	12.4 ~ 15.9 (+0.5)	12.8 ~ 15.0 (+0.1)
남해동부	13.9 ~ 16.8 (+0.1)	13.2 ~ 14.8 (-0.7)	14.8 ~ 15.8 (+1.1)
제주도남쪽	16.9 ~ 17.3 (0.0)	16.4 ~ 16.9 (-0.1)	16.5 ~ 16.9 (+0.7)

○ 최근 5년간('15~'19년) 2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19년 2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2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19년 2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C)	해역	범위(°C)
덕적도, 외연도	3.8 ~ 4.6	서해중부	4.0 ~ 6.0
칠발도	4.8 ~ 6.2	서해남부	5.0 ~ 8.0
울릉도, 동해	10.5 ~ 11.7	동해중부	10.0 ~ 12.0
포항	10.5 ~ 13.1	동해남부	12.0 ~ 13.0
거문도, 추자도	11.8 ~ 13.5	남해서부	10.0 ~ 14.0
거제도	12.2 ~ 14.5	남해동부	13.0 ~ 16.0
마라도	14.9 ~ 15.7	제주도남쪽	15.0 ~ 16.0

##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2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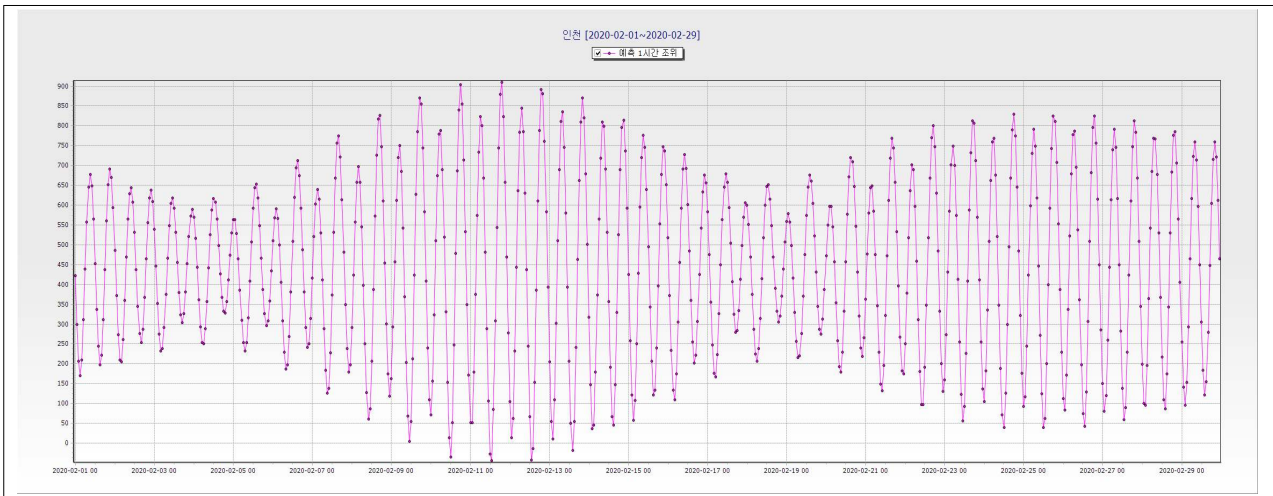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2월 11일에 914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2월 10, 11일에 401cm, 동해안의 포항은 2월 10, 11, 12일에 19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2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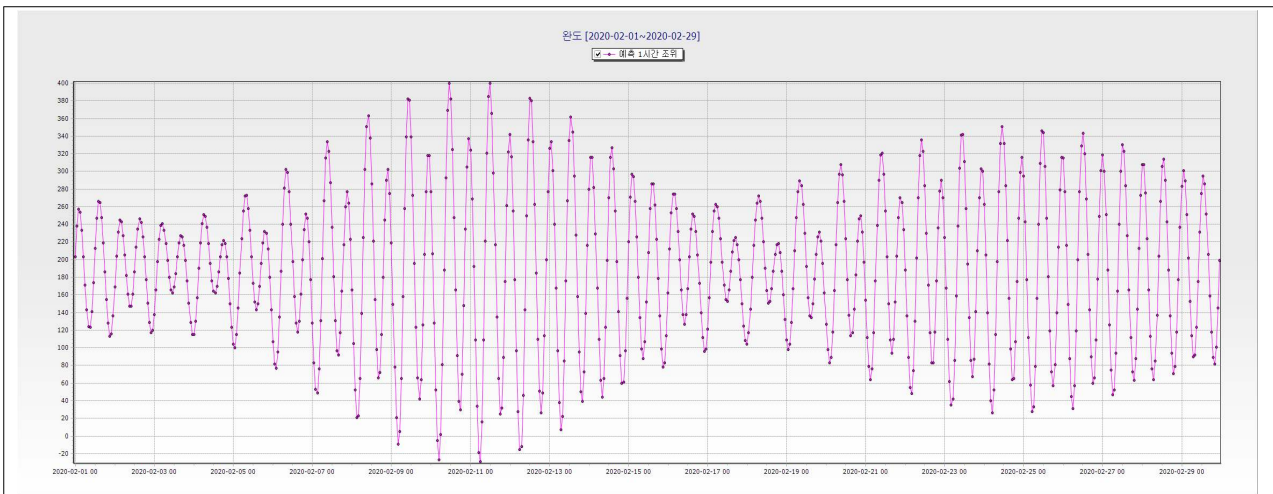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2.9)		대조기(삭 2.24)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 천	17:21	877	17:55	831
	안 흥	16:18	664	16:55	621
	군 산	15:35	678	16:13	639
	목 포	14:38	460	15:16	422
남해안	제 주	11:05	274	11:34	246
	완 도	10:28	387	10:59	351
	마 산	09:12	192	09:47	174
	부 산	08:45	119	09:16	109
동해안	포 항	02:08	17	03:28	13
	속 초	02:11	28	03:08	25
	울릉도	01:24	14	02:40	12

☞ 2020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http://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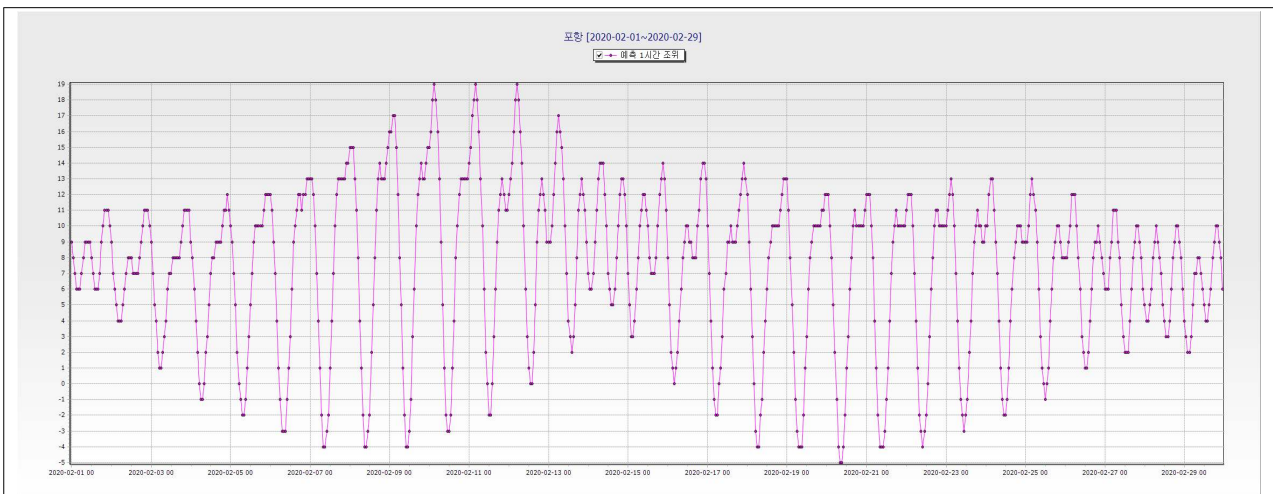
## 2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0년 2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년 2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년 2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 해양안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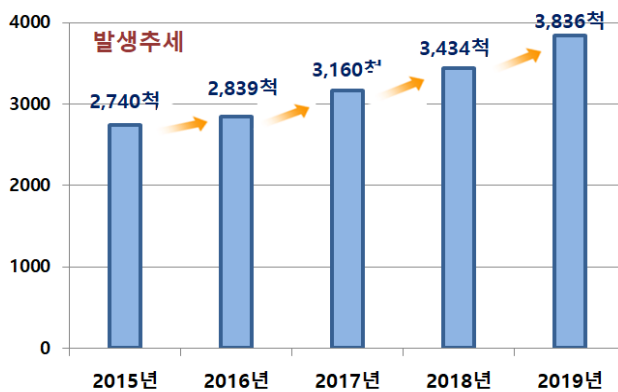
## 해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 ■ 최근 5년간('14~'18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 총 16,009척(95,070명)이 발생하여 선박 15,624척 (97.5%) 및 승선원 94,576명(99.5%)이 구조되었고, 승선원 892명(0.5%)이 사망 (320명) · 실종(175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16,009	95,070	15,624	94,576	495	320	175
2019년	3,836	19,206	3,717	19,119	88	56	32
2018년	3,434	19,588	3,385	19,499	89	56	33
2017년	3,160	17,296	3,108	17,188	10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98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12	77	35



< 사고발생 추세 >



< 인명피해 현황 >

☞ 2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 ■ 해상조난사고 현황

- (총괄) 최근 5년 간 2월에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전체 16,009척 중 794척(4.9%) 으로 연 평균 약 159척의 사고가 발생
  - \* 동 기간 사망·실종자는 46명 발생
- (선종별) 어선 492척, 화물선 45척, 낚시어선 42척 순으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충돌·접촉사고가 111척(13.9%)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 32척(4%), 좌초 31척(3.9%) 순

---

## 해양 안전정보

---

- 2월은 고기압의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해상 기상이 악화되는 기간이 많겠으며, 낮은 수온 등으로 충돌·전복·침몰 등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익수 시 인명 사망률이 높아 사고 예방이 특히 중요요함
- 선박 소유주 및 운항자 등 해양 종사자들은 기상특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항해가 필요하며, 특히 철저한 장비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필요
  -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 사용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송신되는「海 Road 어플」 설치 권장
  -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 가입을 통한 해양기상 정보 수신
    - \* 해역별 기상실황 및 예·특보 등 해양기상정보를 SMS 및 MMS로 제공

##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 최근 5년간('14~'18년) 2월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2월 해양사고: 평균 112건 발생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49	112	144	155	192	195	190	204	229	235	200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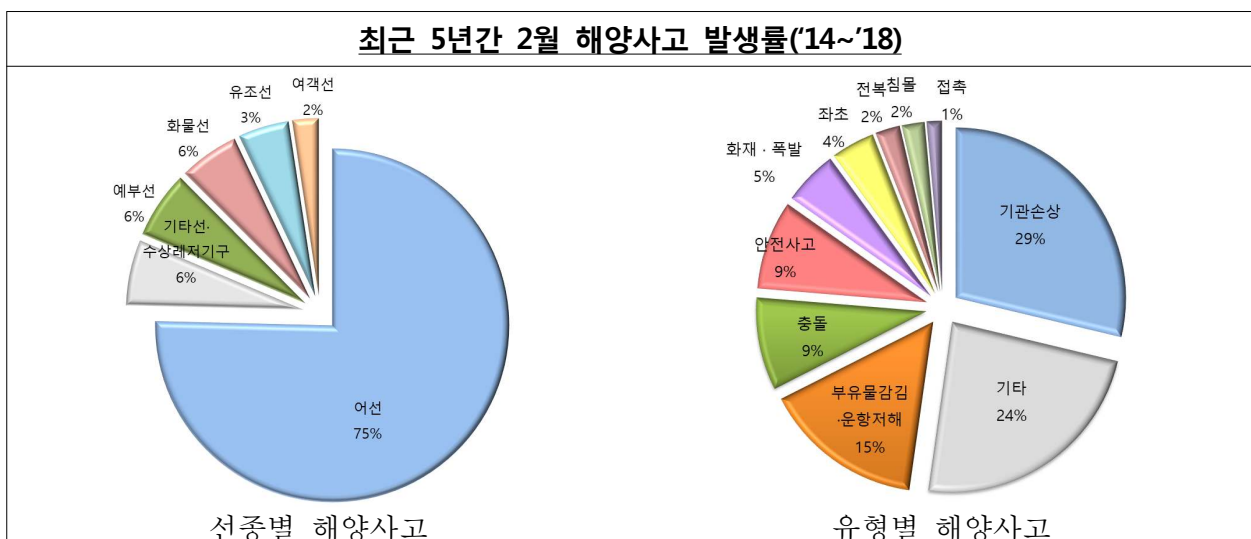
○ (선종별) 어선 441척, 예부선 36척, 기타선·수상레저기구 35척, 화물선 32척, 유조선 27척, 여객선 14척 등의 순(총 619척)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160건, 안전운항저해 85건, 충돌 49건, 안전사고 47건, 화재폭발 29건, 좌초 23건, 전복 13건, 침몰 12건, 접촉 8건 등의 순

### ■ 2월은 전체 사고건수는 연중 가장 낮지만 전복·침몰사고 및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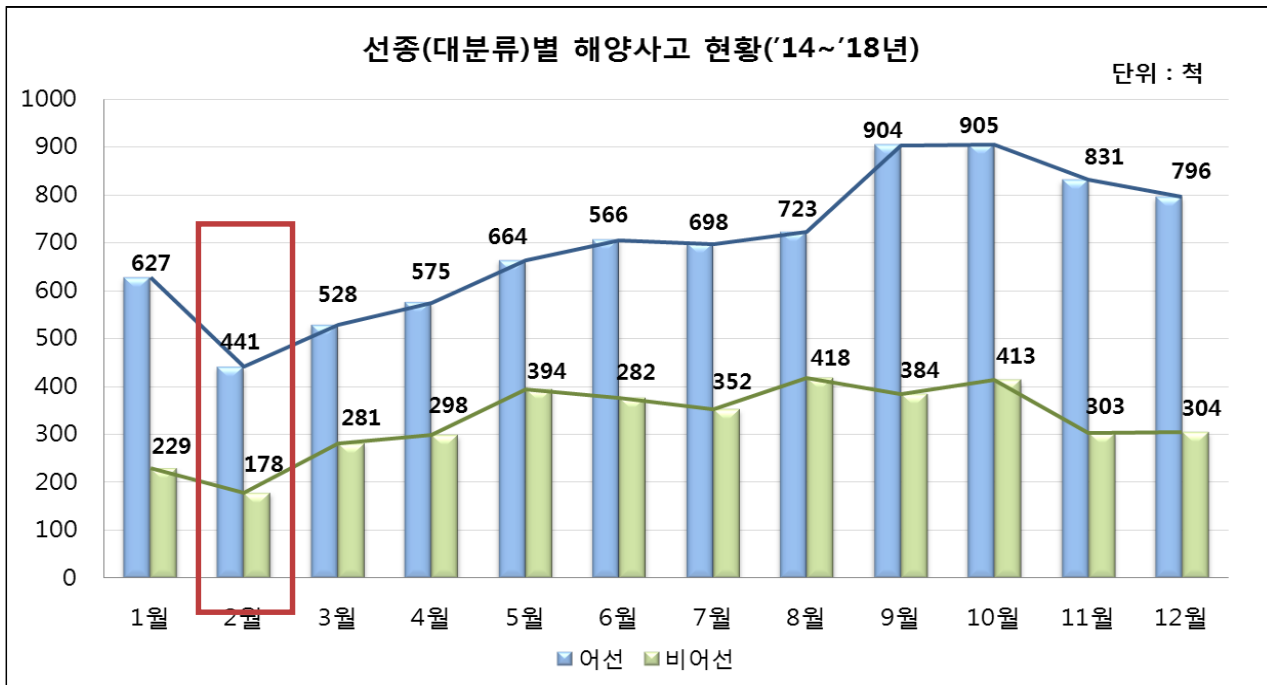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2월 전체 사고건수 대비 전복·침몰사고가 4.3%, 안전사고가 7.9%  
(전체 연평균 사고건수 중 전복·침몰사고가 2.3%, 안전사고가 5.8%를 차지)

- (전복·침몰사고) 2월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해상기상이 특히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무리한 운항 자제 필요
- (안전사고) 2월 전체 안전사고 중 78%가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히 조업 중 주의가 요구되며 익수 시 저수온에 따른 위험이 높아 사고예방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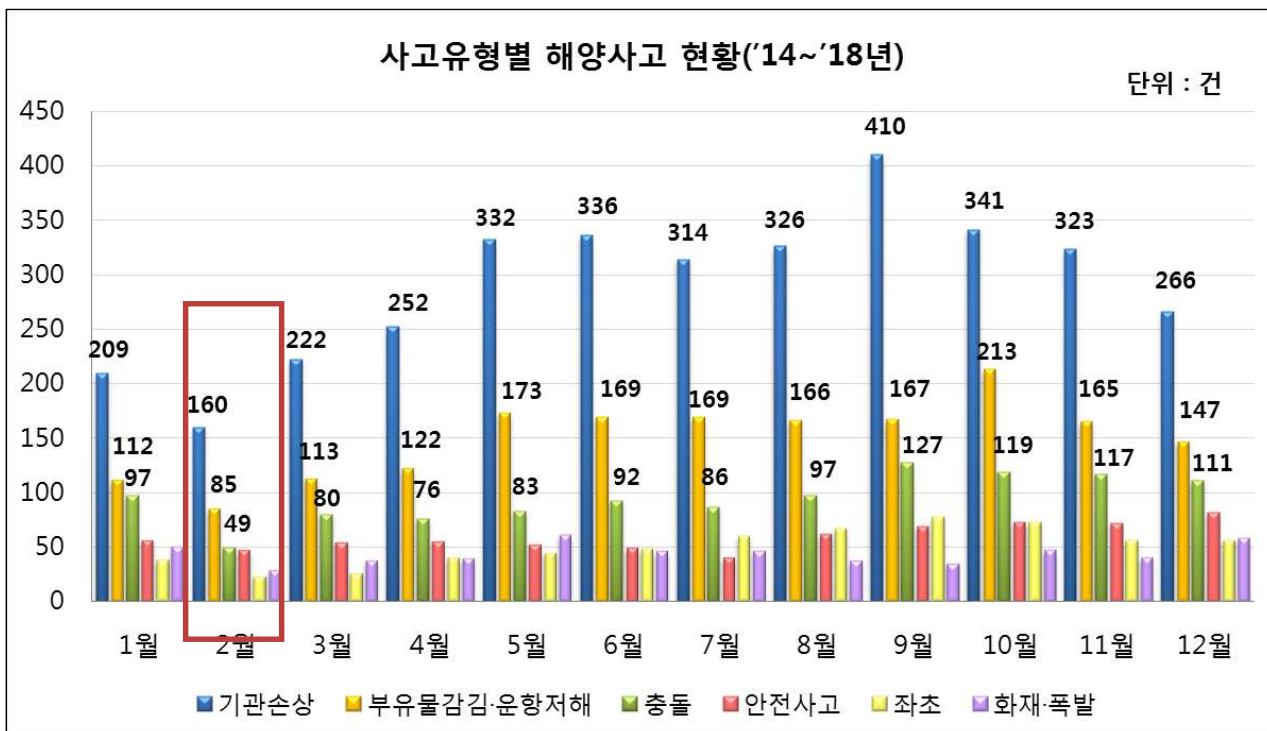


### ■ 최근 5년간('14~'18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2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을 참고

#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과학원

## ■ 2월 어황정보

### ○ 지난달(12월) 어황

- 1월(월보기간: 12.15~1.18)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고등어와 전갱이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갈치와 참조기는 평년수준, 멸치, 살오징어, 망치고등어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 2월 주요 어망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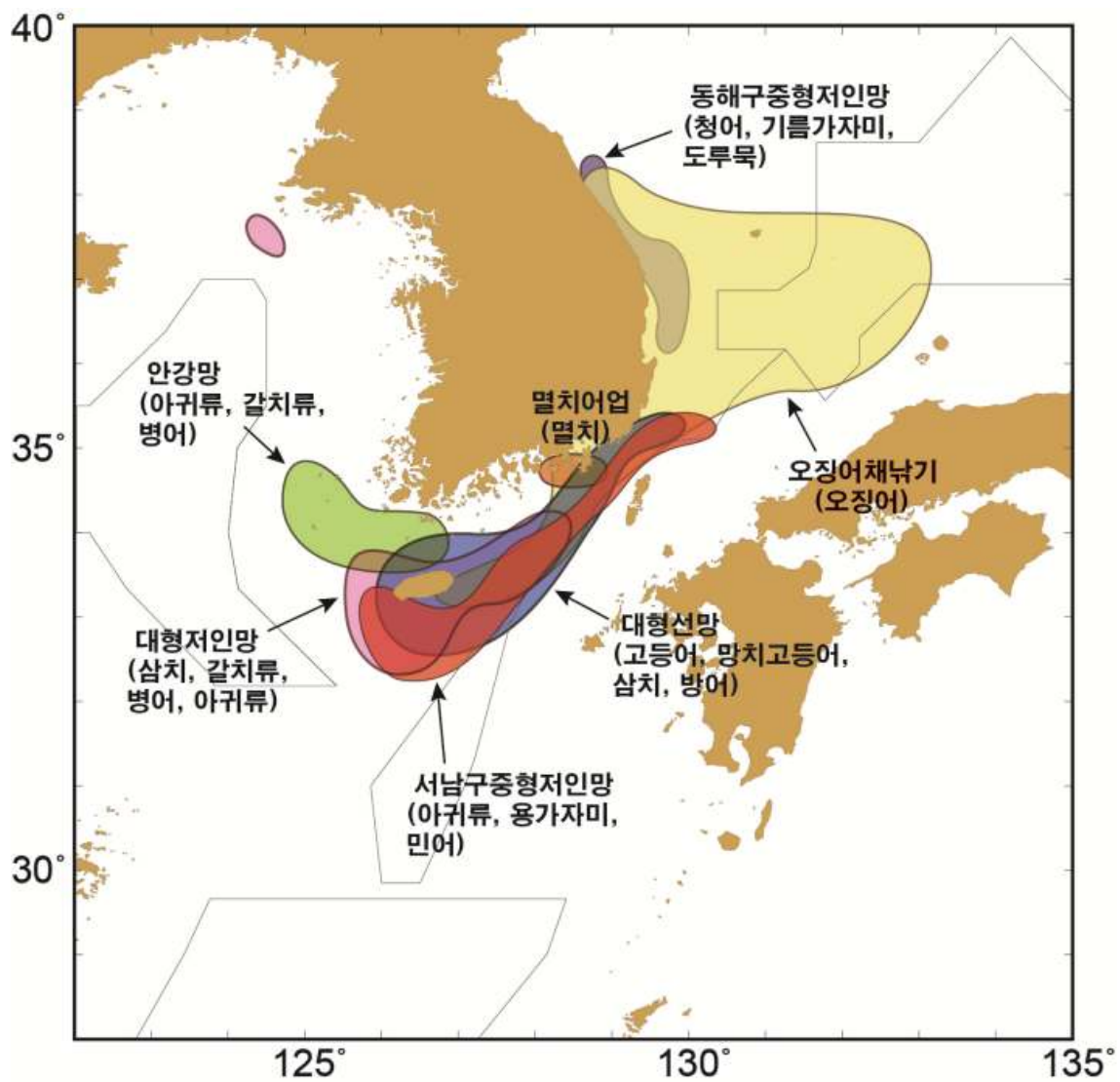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망치고등어, 삼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동해 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2월의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수온하강에 따라 근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고, 연 조업척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낮은 수준으로 2월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근해안강망어업: 주요 어종들의 남하(월동)회유에 따라 제주 북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아귀류, 갈치, 병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연 조업척수는 증가하며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대비 순조로울것으로 전망됨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병어,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 서부 근해~제주남부, 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조업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서부 근해~제주 남부, 남해 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지겠고, 아귀류, 가자미류, 갑오징어류, 보구치, 넙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인망어업: 제주 남서부 근해~부산, 울산 근해에서 아귀류, 가자미류, 민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근해에서 청어, 기름가자미, 도루묵, 대구를 대상으로 조업하겠다. 저인망어업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오징어채낚기어업: 산란을 위해 남하 회유하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경북/경남 연·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연조업척수의 감소에도 평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지겠음

###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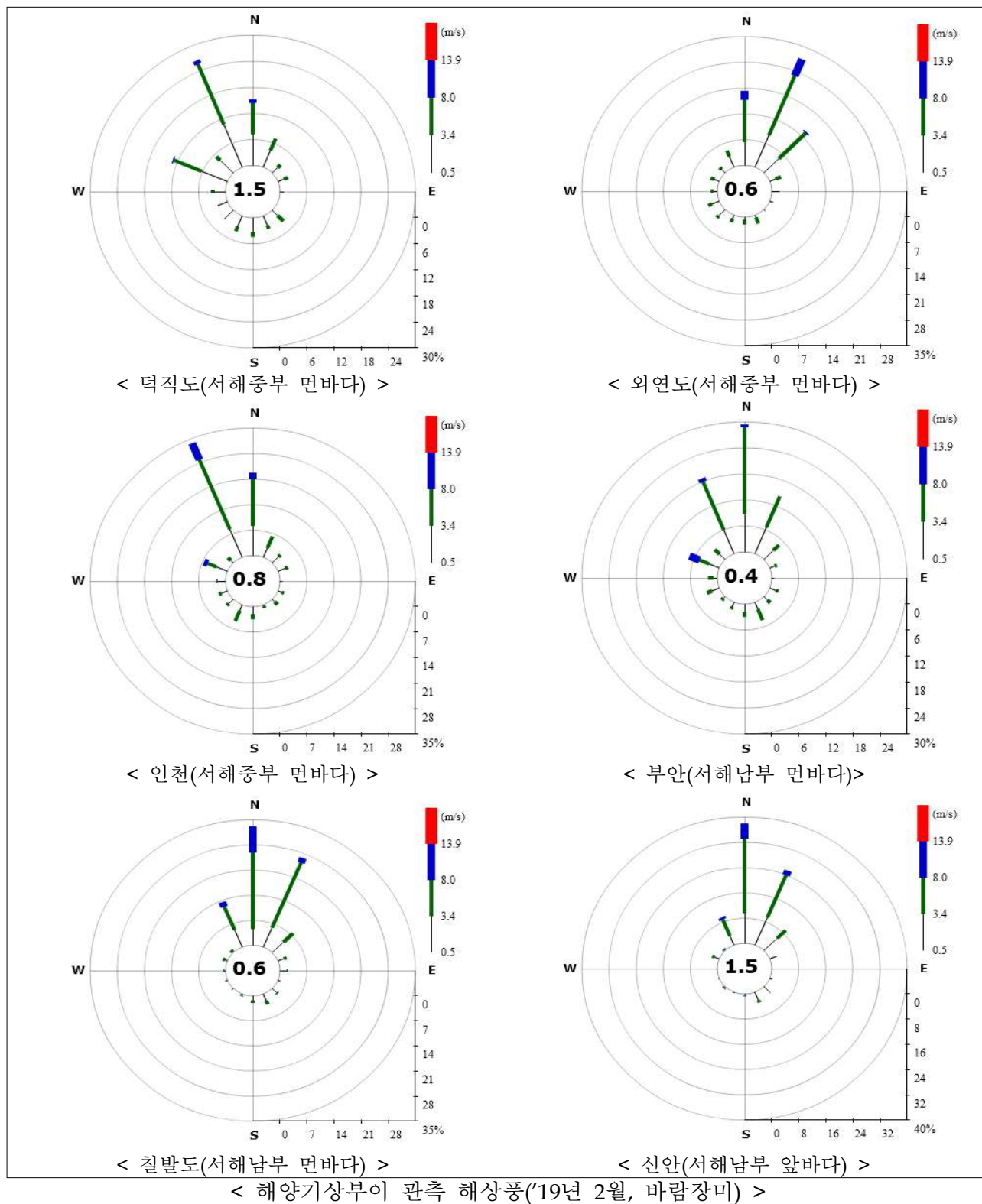
고 등 어	주어기(8월~이듬해1월) 들어 전반적으로 평년수준 이상의 어황을 기록하고 있다. 2월에 들면 계절적인 수온 하강에 따라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동해 남부해역~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겨울산란군의 남하회유가 이어지며, 이때 산란회유를 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경북/울산 근해)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동해 남부해역의 겨울철 수온 변동성에 따라 어황 또한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대비 동해수온은 상승하였으나, 최근 어군밀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겨울철 연안 수온하강에 따라 외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 중부해역(남해도와 거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권현망어업이 조업을 이어 나가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된다.
갈 치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다. 주어기(8-12월)가 지나 전월보다 어획량은 감소하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특히 제주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전월대비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전 쟁 이	산란시기(1~4월 *산란장:동중국해)로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7월 이후 평년대비 순조로운 어황을 이어가고 있어 어군 밀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망 치 고 등 어	주로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어장(서해남부, 제주 남동부)에서 함께 어획되고 있으며, 2019년 고등어 어획량 감소와 더불어 평년대비 이례적으로 부진한 어황을 기록하고 있다. 계절적인 수온하강에 따라 어장은 제주 주변해역으로 남하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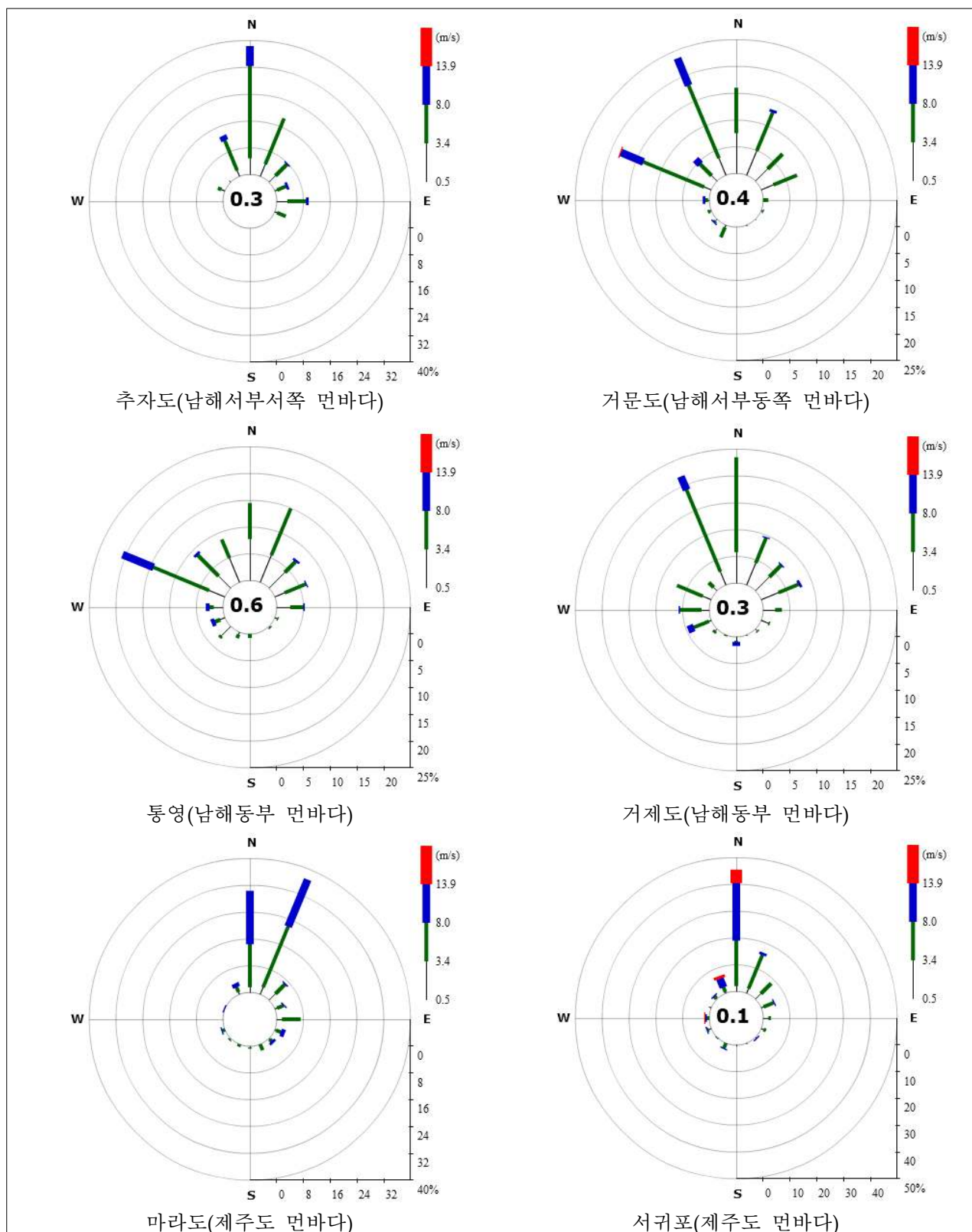
< 2월 어업별 예상 어장 >

## 【부록 1】

##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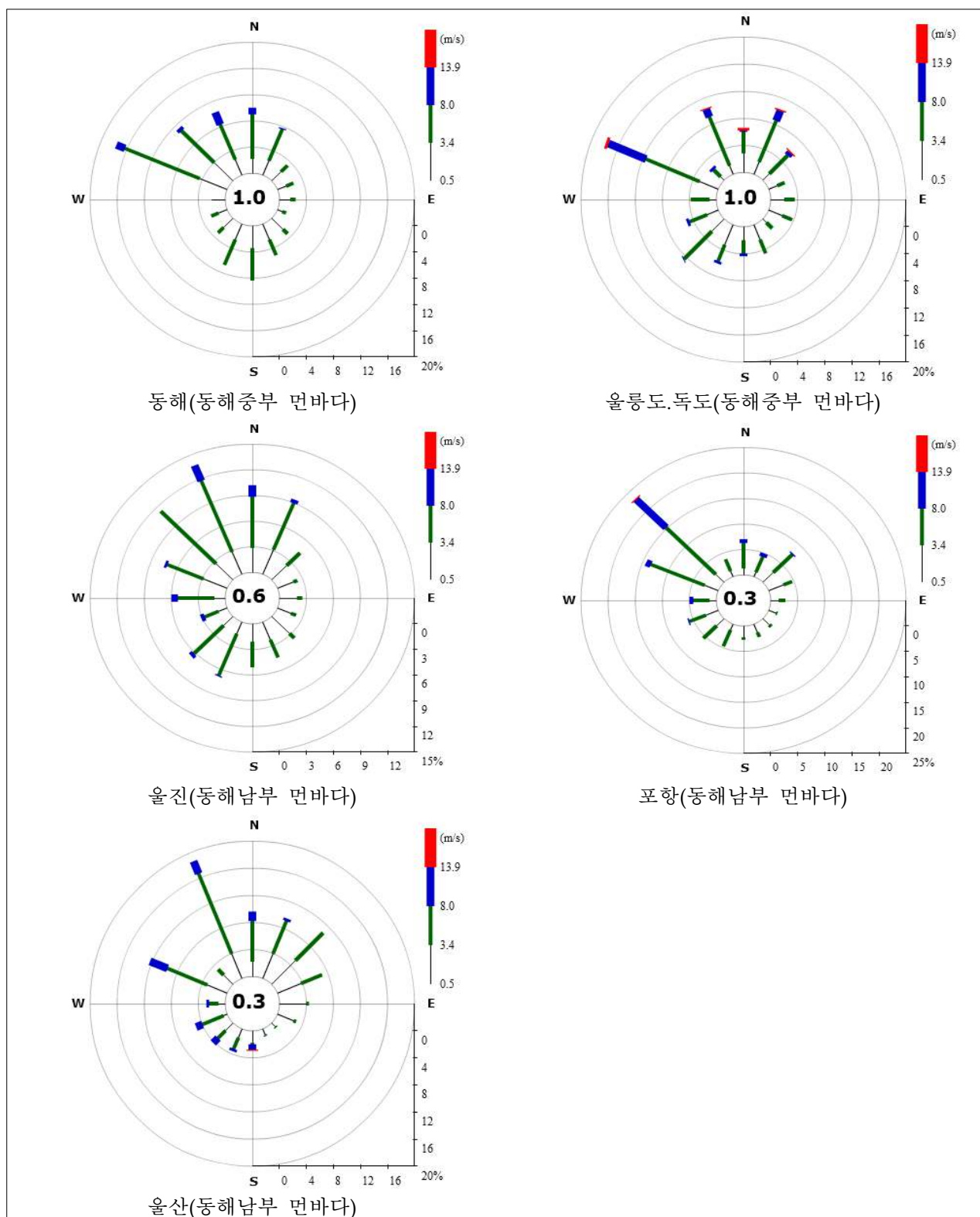


##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9년 2월, 바람장미) >

##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9년 2월, 바람장미) >

## 【부록 2】

## 2월의 주요 해상조난 사고 사례

제공: 해양경찰청

## ○ 사고 사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9. 2. 13 시간미상	뉴*호 (45톤 어선 9명)	선체 침몰 13명 구조	상호 견시 부주의에 따른 충돌 * 당시기상 : 북풍 12~16㎞/s, 파고 3m, 시정 2M'
101**호 (46톤 어선 13명)	장*호 (9.77톤 어선 6명)	선체전소 3명 실종	원인미상 기관실 화재 발생 * 당시기상 : 북서풍, 6~8㎞/s, 파고 2~2.5m, 흐림



뉴\*호-101\*\*호 충돌·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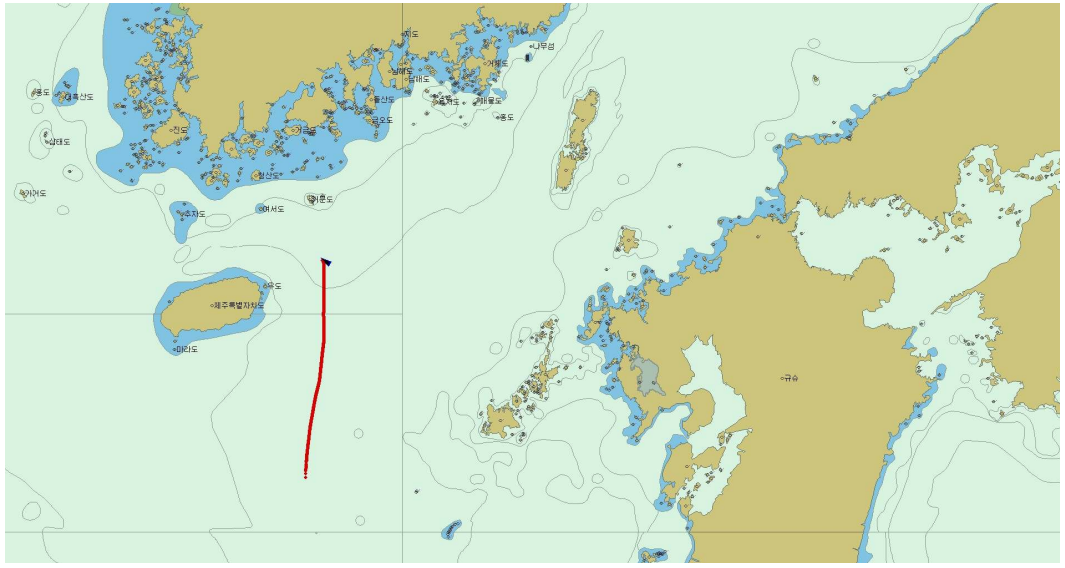
어선 태\*호 화재

## 【부록 3】

## 2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1. 어선 A호 침몰사건

사건명		어선 A호 침몰사건
사건 개요	선박	어선, 278톤, 길이 43.36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176kW 1기
	일시	2017. 2. 20. 15:30경
	장소	제주시 우도 북동방 23마일 해상
	피해	선체 침몰, 선원 1명 사망, 선원 1명 실종
	상황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큰 너울성 파도로 인해 선수로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됨
날씨	흐린 날씨, 북서풍 초속 17~20m, 파고는 4~5m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선장이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다가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사고 발생</li> </ul>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장은 항행 중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무리하게 항해하지 말고 가까운 항구로 피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li> <li>○ 선장은 특히 노후선의 경우 출항 전 선내창고의 수밀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 항행 중 선내로 해수가 침입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li> <li>○ 어선은 조업 시 예상 조업기간 중의 해상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li> </ul>	
선박침몰 전 항적		

## 2. 어선 B호 선원실종사건

사건명		어선 B호 선원실종사건
사건 개요	선박	어선, 69톤, 길이 23.83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446kW 1기
	일시	2017. 2. 16. 09:06경
	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등대 동방 약 50마일 거리 해상
	피해	선원 1명 실종
	상황	통발 투승작업을 하던 중 통발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됨
날씨	흐린 날씨, 서남서풍 초속 10~12m, 파고는 1~2m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발 투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현측 난간에 올라서서 통발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하여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li> <li>○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li> </ul>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이 통발 투승 시 선원은 현측 난간에 절대 올라서서 작업해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함</li> <li>○ 선장은 조업이 길어질수록 선원들의 피로가 쌓여 실수를 할 때가 생기므로 더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li> <li>○ 통발조업 중에는 각각의 선원이 맡은 임무에 따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높은 안전 의식이 요구됨</li> </ul>	
참고사진		